

2018년 (통권64호)

발행인·정규형 / 편집인·손준홍 / 발행·기획실 / 등록번호·인천바01043 / 디자인·(주)꽃을담다(02,325,964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5(부평동) 한길안과병원 Tel_032,503,3322 Fax_032,503,0801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제도'는 외국인환자 특화 서비스와 환자 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전문 병원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에 대하여 나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의료기관 인증'이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의료의 질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엄격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10월부터 우리 병원의 토요일 진료시간이 변경됩니다

10월부터 우리 병원의 토요일 진료시간이 변경됩니다. 고객 분들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30분 앞당겨 오전 8시 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없이 오후 1시 30분까지 진료를 하니 병원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토요일 08:30~13:30
(점심시간 없음)**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료봉사 참여

김철우 교육수련부장과 이수찬 진료과장, 의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9월 4일, 우리 병원 김철우 교육수련부장과 이수찬 진료과장이 경기도 안산에서 진행한 '노인실명예방 사업 찾아가는 무료 눈 검진'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한국실명예방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주관하는 활동으로, 눈이 아파도 안과를 찾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과 어린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합니다. 우리 병원은 총 186명의 환자를 검사하고 진료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주르륵, 눈물흘림증

끌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가을이 훌쩍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밤에는 살짝 추운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눈물흘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아집니다.

'눈물흘림증'이란 지나치게 많은 양의 눈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수시로 닦아 주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 자주 눈물이 흐르고, 이로 인해 시야가 뿌옇고 눈곱이 많이 생기거나 눈 주위가 짓무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물이 많아서 자주 흐른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흔히 겪는 안구건조증도 눈물흘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눈물길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흘림증은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하면 세균에 감염되어 눈물주머니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눈물이 배출되는 길은 눈에서 코로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막혀도 눈물흘림 증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폐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지나치게 눈물을 흘린다면 꼭 가까운 안과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 보세요.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가득한 마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종류	원인	치료 방법
눈물길에 문제가 생긴 경우	눈물길이 좁은 경우 실리콘 튜브 삽입술 : 임시로 실리콘 튜브를 눈물길에 삽입하여 좁아진 눈물길을 넓혀주는 수술. 실리콘 튜브는 약 6개월 유지한 이후 간단하게 제거합니다. 5분 정도 소요되는 수술로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 때문에 전신마취가 어려운 환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경우 눈물길 수술 : 눈물길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수술입니다. 코 속의 눈물뼈 일부를 제거, 눈물주머니와 코 속을 개통하고 이 부위에 실리콘 튜브를 삽입해 눈물길을 뚫어줍니다. 레이저 치료 : 눈과 코 사이의 눈물주머니를 둘러싼 얇은 뼈를 뚫어 코 속으로 눈물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통증이 적고 수술시간이 짧아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뼈 두께가 두꺼우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서 넘치는 경우	안구건조증, 알레르기를 포함한 각종 결막염이나 각막 질환, 렌즈의 사용 등으로 자극이 많은 경우	인공눈물이나 항염증제 약물 치료

아픈 눈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우리 병원 친절직원

아픈 눈과 함께 이로 인해 불편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우리 병원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친절직원 및 사연은 각 층에 설치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모집했으며,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추천해 주었습니다.



간호부 외래1파트
최미선 간호사

추천인 : 조혜○님

저는 한길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요즘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지만 막상 수술을 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진료 후 수술 진행을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최미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친절하게 인사해 주어서 떨리는 제 마음이 순간 다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믿고 수술을 해도 되겠다고 안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최미선 간호사를 친절직원으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원무팀
김유나 직원

추천인 : 강옥○님

저는 한길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치료를 거의 마쳐갈 때쯤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제증명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거여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해 제증명 청구의 김유나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척이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필요한 서류를 다 말하지 못했는데도 정확하게 잘챙겨주어 보험금 청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길안과병원 직원들은 전부 다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지만, 유독 제증명 청구의 김유나 직원이 눈에 띄게 친절했습니다. 친절한 만큼 얼굴도 너무 예쁜 김유나 직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메디컬 이벤트 성료

지난 7월 28일 토요일, 의료진을 포함한 총 7명의 우리 병원 직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천의료관광홍보관에서 메디컬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것으로, 25~28일 나흘간 ‘2018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선정된 4개 병원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28일, 1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검사하고 진료 상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은 “부모님이 백내장, 망막질환이 염려되는 나이여서 걱정하고 있었다. 이벤트 덕분에 걱정도 덜고 좋은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연히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내 눈 상태도 알 수 있는 좋은 이벤트 같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부산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참가



무더운 여름의 끝, 8월 31일~9월 1일 이를 동안 부산에서 열린 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우리 병원 국제진료팀과 홍보팀이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몽골, 중국 등 10개국 80여명의 국외 바이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의료관광관, 의료산업관, 의료체험관, 해외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팸투어 등 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와 우리 병원을 포함한 4개 의료기관은 의료 상담과 함께 기

념품을 배부하면서 인천 의료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펼쳤습니다.

박종민 국제진료팀장은 “이번 행사 참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A국가 환자 유치에 집중했던 우리 병원의 시야를 몽골, 중국 등 다양한 국가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환자들에게 우리 병원의 의료기술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어 한 마디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즈드라스뜨부이제)

아침인사

Доброе утро! (도브러에 우뜨라)

점심인사

Добрый день! (도브르이 우드라)

저녁인사

Добрый вечер! (도브르이 베체르)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очень приятно (오친 뿌리아뜨나)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Как Вас зовут? (깍 바스 자붓)

제 이름은 ○○○입니다

Меня зовут ○○○ (미냐 자붓 ○○○)

* 파란 밑줄은 강세 표시

(국제진료팀 이진선 직원 감수)

진료시간표

센터	의료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전안부센터	정규형		●								
	최기용			●		●			●	●	
	조범진	●			●			●			●
	이상목						●	●	●		
	임태형		●	●		●			●		●
	조영주	●	●		●		●		●	●	
녹내장센터	최진영	●			●	●	●				●
	정혜진	●	●				●	●		●	●
	김미정		●	●		●		●	●		●
	나정화	●		●	●				●		
망막센터	손준홍		●	●				●			●
	이정희	●				●		●	●		
	박영숙	●		●					●		
	이경민	●			●	●	●				●
	공민귀	●			●	●		●			●
	문병길		●	●			●	●			●
	양영성		●		●	●	●				●
	이수찬		●		●				●	●	
성형안과센터	이상언		●	●				●	●	●	●
	김성철	●			●	●	●				●
	최연정		●		●	●		●		●	●
소아사시·약시·신경안과센터	김철우	●	●	●			●		●	●	
	김현경				●	●		●			●

365일 눈 건강을 생각합니다

WWW.HANGILEYE.CO.KR

진료 안내

- 대표전화 _ 1577-7117
- 기타안내 _ 032) 503-3322
- 라식센터 _ 032) 529-1001
- 평일 _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_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 점심시간(12:30~13:30)을 피해서 오시면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한길안과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건강한 눈을 위한

원스톱 토클케어



한길안과병원만의 특별함

- ◆ 6개 전문센터 종일 외래 진료 가능
- ◆ 전문센터 간 빠른 협진으로 안과 전 분야 통합진료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안과와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력파 의료진의 눈 질환 완벽 케어”

대학병원에 견줄 만큼 우수한 30명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믿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고가의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220여 개의 전문 안과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멀리 해외까지 입소문 난 병원”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_ 연간 외국인 진료건수 : 811건(2017년)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신문보도

기호일보

송도 의료복합단지 재개 ‘물꼬’
2018.7.27.

의학신문

한길안과병원,
인천공항 메디컬 이벤트 성료
2018.8.1.

경인일보 외 3개 매체

세종병원·한길안과병원 성금기탁
부평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냉방비 지원
2018.8.20.

데일리메디

환자와 직원 모두 행복한 곳 목표
한길안과병원
정규형 이사장 인터뷰 게재
2018.9.3.

조선일보

서울부민병원·한길안과병원,
'헬스조선 좋은 병원' 선정
2018.9.10.